제 100 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09.04.01)

일본어디로 가고있나?
-국가진로의 회고와 전망-

한상일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일본이라는 나라의 오늘의 모습을 우선 살펴보고 싶다. 정치적으로는 심각한 불안정과 혼미한 상태, 경제적으로는 성장률 둔화와 실업률 증가로 사회 전반적으로는 자신감을 상실하고, 이념적으로는 점점 보수화 되고 내셔널리즘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과 함께 전반적으로 국제적인 위상이 허약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진로와 목표가 불투명해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일본의 시대는 끝난 것인가?

우선, 일본의 성공과 실패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것은 정치적 Leadership 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성공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는 메이지, 쇼화 후기에는 유능한 정치 리더십 및 리더십 집단이 있었고, 실패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는 다이쇼, 쇼화 전기에는 리더십 부재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성공과 패배라는 역사의 한 주기를 체험한 경험적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공의 시대에는 국민적 leader 창출의 문제가 존재하고, 또한 구조적 개혁 필요하다. 국민적 leader 가 탄생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적 개혁 필요하다. 또한, 경쟁적 구도와 국민의 선택 폭 확대해야하고, 남아있는 정치적 세습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Q&A>

Q. 리더십에 대해 질문하고 싶다. 일본의 헤이세이 시대에 리더십이 부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헤이세이 시대에 리더십이 부재했다는 것은 일본의 다른 시대와 비교해 보면 간단한데, 성공적인 시기로 뚜렷한 리더십을 가졌던, 메이지, 쇼화후기에 비해, 가장 최근인 헤이세이는 시작 후 지금까지 15 번의 정권교체를 단행했다는 것만 보아도 그러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거의 2 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리더십의 흔들림은 잘 알 수 있다고 본다.